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반박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행정인사과장 선 욱(02-2100-2750)	담 당 자	서 나 윤 인사팀장 (02-2100-2751)	

제 목 :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검토·심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.
 (조선비즈 3.2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- 조선비즈는 3.24일자 「금융위, 금감원장 징계 남발 제동… 징계 수위 검토 조직 신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정한 제재(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)가 적정한지를 검토, 심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한다. … 금융위는 팀 구성 인력과 출범 시기를 조율 중이다.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

-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검토·심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 시요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금융관리청 콜센터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